|  |  |
| --- | --- |
|  | **보도자료** |
|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6, 4층 팩트스토리  담당: 조희정 이사, 070-7771-9447  E-mail: [hj@factstory.kr](mailto:hj@factstory.kr) |



**「1970년 정인숙 살해 사건」모티프 소설**

**스캔들, 도시의 연인**

(작가 박세림)

카카오페이지 연재 완료

해당 작품은 카카오페이지 웹사이트 문학/실용 카테고리([https://page.kakao.com/theme/list?themeId=10703](https://page.kakao.com/theme/list\?themeId=10703))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PC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실화소재 웹소설 및 르포 전문 프로덕션 팩트스토리(대표 고나무)가 기획한 세 번째 작품 <스캔들, 도시의 연인>이 카카오페이지 연재를 완료했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원조 권력형 섹스와 살인 스캔들로 꼽히는 ‘정인숙 살해 사건’을 모티프로 제3공화국 당시 정계 거물들의 요정 정치와 권력의 희생양이 된 호스티스 정인숙의 죽음을 팩션(Faction, Fact+Fiction)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지난 4월 24일(수) 국내 대표 스토리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조회수 2만 뷰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독자들은 댓글로 “한 편의 영화 같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하다”는 호평과 함께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냐”며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은 ‘정인숙 살해 사건’**

**‘피해자 정인숙’이 아닌 ‘인간 정인숙’을 그리다**

1970년 발생한 ‘정인숙 살해 사건’. 사실 정인숙씨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드러난 것이 없다. 그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 무슨 고민을 했던 여성이었을까? 1970년대 박정희 정부, 그의 반대자, 언론계의 남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묘사했듯 그저 '요부'였을까?

정인숙씨는 공무원의 딸로 태어나 5·16 쿠데타로 가세가 몰락하였으며, 4년제 대학 국어국문학과를 다녔고 영어를 잘했던 당대에 흔치 않았던 여성이었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 팩트는 엉성하고, 엉성한 팩트 사이사이에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고위층 남자들이 많다는 의혹이 1970년대부터 국회에서도 나왔다.

지난 49년 동안 사람들은 정인숙씨 살해의 진범과 음모론에 대해서만 말하며 살해 범죄의 피해자인 정인숙이란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기억했다. 박세림 작가와 팩트스토리는 “본 작품을 통해 추상적인 피해자 정인숙을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 그리고 싶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1970년 ‘정인숙 살해 사건’ 모티프 팩션**

박정희 정부 시절 정·관·재계 거물이 드나들던 요정 선운각의 호스티스였던 정인숙. 1970년 3월 17일 정인숙은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다. 당시 특권층의 상징이었던 회수 여권과 함께 발견된 수첩에는 정일권 총리 등 당시 정·관·재계 인사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울러 미혼인 정인숙에게 3살배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층의 청부 살인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살해범으로 지목된 친오빠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지만 훗날 그는 범행을 부인한다. 정인숙 사건은 국가정보원 과거사위 등에서도 조사된 바 없어 아이 친부의 정체, 수첩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버린 ‘정인숙 살해 사건’, 그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의문이 소설의 출발점이다. 박세림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1960~70년대 요정 정치의 시대는 막을 내렸으나 여전히 권력과 돈에 의해 희생되는 여성들이 존재하는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추해 보고자 했다.

**남겨진 수첩 속에 범인이 있다!**

모두 인숙을 주목했다. 인숙은 품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제가 지금껏 만나온 재계와 정계의 인사들… 그들의 목록이에요.”

(…)

“스캔들. 이 수첩 속의 스캔들로 나라를 뒤흔드는 거죠.”

- ‘스캔들, 도시의 연인’ 26화

사망한 정인숙과 함께 발견된 수첩과 당시 특권층의 상징이었던 회수 여권. 수첩에 담긴 이름들은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이었던 정․관․재계 인사 수십 명이었다. 그녀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추악한 권력․섹스 스캔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스캔들, 도시의 연인>은 “만약 그때 죽은 이가 정인숙이 아니었다면?”이라는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해 ‘정인숙 살해 사건’을 재구성한다. 작품 내에서는 피해자 정인숙 대신 다른 여성이 사망하고, 인숙은 빼곡하게 수첩을 채운 익명의 남성들과 사망한 여성 그리고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인물로 등장한다.

**수사·재판 과정 및 시대적 배경은 팩트 반영**

**대화와 장면, 일부 인물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총 30화로 구성된 <스캔들, 도시의 연인>은 ‘정인숙 살해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다. 르포르타쥬 방식의 사실 취재로 인간 정인숙을 재구성하기에는 세월의 벽이 높았고 기록은 부실했다. 박세림 작가와 팩트스토리는 여러차례 공동 기획회의를 거쳐 친오빠 회고록 등에 알려진 사실 관계에 기반하면서 팩트와 팩트 사이에 빈 정인숙의 캐릭터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채워넣었다. 팩트스토리의 밀도 있는 취재를 통해 작품 속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과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은 모두 실제 역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극적인 요소를 위한 대화와 장면 및 일부 인물들은 박세림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완성된 것. 독자들은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서술과 더불어 당대의 정치․사회적 배경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재미와 사실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표 스토리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독점 연재**

<스캔들, 도시의 연인>은 감각 있는 2049 독자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모바일 연재 방식을 채택했다. 매체 특성을 반영한 빠른 호흡감과 직관적인 서술이 돋보인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스토리 콘텐츠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누적 1900만 명이 방문한 카카오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이다. 웹툰, 소설 등 2000개 이상의 작품을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보유중인 콘텐츠는 2만여 개에 달한다.

**저자 박세림**

저자 박세림은 2012년 콘텐트진흥원 신화창조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여 현재 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타인의 진실’, ‘조선에 핀 백합’, ‘마녀보감’, ‘뷰티풀 뱀파이어’ 등이 있다.

**공동기획 팩트스토리**

팩트스토리(대표 고나무)는 영화 <머니볼>의 동명 원작 논픽션처럼 철저히 사실취재에 기반한 정통 논픽션인 르포, 전기와 일부 가공의 요소를 섞은 실화 소재 웹소설 등 크게 두 종류의 실화 스토리를 기획․제작하는 프로덕션이다. 지난 해, 프로파일러 논픽션 <악의 해석자>를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하였고 드라마 판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9년에도 <스캔들, 도시의 연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실화 소재 웹소설을 활발히 기획․제작 중이다.